

# 북한의 인구센서스결과 분석

盧龍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1. 북한의 인구통계 개관

북한의 인구문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분석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인구자료가 국가경제의 계획 및 통계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체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구정책기조와 현실적인 통계자료의 구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인구문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를 포함하여 그동안 북한이 발표해 온 각종 통계자료는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하며, 자료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북한은 1963년부터 공산당정권의 자료 공개 금지에 따라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발표를 통제해 왔으며, 간헐적으로 『조선중앙연감』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하여 다소 모호한 내용의 선전용 통계자료

를 발표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에 국제기구 등 몇몇 기관이 발표한 북한인구 관련 통계자료도 이들이 독자적으로 추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를 자체기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료는 단편적인 정보에 기초함으로써 북한의 현실과 다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FPA)의 기술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 지난 1989년 인구자료와 그에 관련된 사회지표들을 UNFPA 측에 제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인구관련 자료 중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었던 ‘에버쉬타트’의 보고서도 바로 이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다<sup>1)</sup>. 그리고 이후 북

1) Eberstadt &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92; Nicholas Eberstadt,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 Trends and Implications", *The Present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Econom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October 1991, pp.200~253.

한은 1994년 1월 3~15일 기간 중 UNFPA의 도움을 받아 해방이후 최초의 인구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구조사는 중앙 및 지방 행정단위의 인구등록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국가계획위원회 산하 중앙통계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이 각 지방에 설치된 통계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 인구총조사가 실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북한 스스로도 “보다 완벽하고 분석적인 인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최초의 현대적인 인구센서스” 결과라고 적고 있다.

그 결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구일제조사자료집’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자료는 1993년 12월 31일 자정 현재 북한국적의 모든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범주에는 기숙사, 노인 수용시설과 같은 집단생활시설 단위를 포함하고 있다<sup>2)</sup>. 본고에서는 UNFPA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 발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1993년도 북한의 인구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2. 총인구규모

북한의 총인구는 지역별합계 결과 1993년말 현재 약 2121만명(성비 94.9%)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은행<sup>3)</sup>’과 ‘에버쉬

북한의 총인구는 지역별 합계결과 1993년말 현재 약 2121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누락된 군인수를 포함하면 총인구는 한국은행(1994)의 추정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타트(1991)’의 1993년도 북한연앙인구 추정치(2265만)와 약 144만명의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그런데 연령별 인구비율과 도·농 인구비율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총인구를 약 2052만명(남녀성비 89.2%)으로 기재하여 지역별 인구합계와 약 69만명(남자 65만, 여자 4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39~42세 사이의 남녀인구가 전후 연령에 비해 유달리 적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연령구간에 속하는 인구가 30만명 이상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연령구간의 개별 연령별 인구수는 각각 38세 및 43세와 비교할 때 적게는 33,247명(남자 16,361명, 여자 16,886명)에서 많게는 111,900명(남자 54,341명, 여자 57,559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에 39~42세 구간에 속하는 개별연령별 인구를 각각 38세 및 43세의 인구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누락인구수는 약 297,898(남자 148,441명, 여자 149,457명)~341,682명(남자 166,629명, 여자 175,053명)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에버쉬타트가 제시한 이 연령구간(1990년 현재 35~39세)의 남

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3) 한국은행, 『1993년도 북한의 GNP 추계』, 1994.

표 1. 북한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1993년말 현재)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성비 <sup>1)</sup>
총인구(A) <sup>2)</sup>	21,213,378	10,329,699	10,883,679	94.91
총인구(B) <sup>3)</sup>	20,522,351	9,677,663	10,844,688	89.24
0~15세	6,045,975	3,100,141	2,945,834	105.24
16~24세	3,067,515	1,308,429	1,759,086	74.38
25~29세	2,019,525	987,095	1,032,430	95.61
30~34세	1,607,929	791,117	816,812	96.85
35~39세	1,386,454	682,990	703,464	97.09
40~44세	990,787	482,309	508,478	94.85
45~49세	1,243,077	603,230	639,847	94.28
50~54세	1,208,802	582,990	625,812	93.16
55~59세	1,063,657	487,276	576,381	84.54
60~64세	748,594	301,764	446,830	67.53
65세 이상	1,140,036	350,322	789,714	44.36

- 주: 1) 여자 100명당 남자 수
- 2) 지역별 인구합계 수치
- 3) 연령별 및 도·농 인구합계 수치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자인구수(약 69만명)가 당시 40세~44세 구간의 연령층(약 55만명)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총인구규모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물론 추정방법상의 오차도 그 한 원인이겠으나, 그 보다는 북한이 인구추계에서 군인들의 수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왔다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6~24세 사이의 남녀성비가

유달리 작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연령구간에 속하는 군복무 중인 남성들이 누락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군인수를 <표 2>에 서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해 보면 약 65~125만명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결과는 그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추정된 군인수를 북한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지역별 총인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연령별 총인구를 기준으로 해석해

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실제 총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북한의 최대 추정가능 군인수 약 125만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지역별 총인구에 더하면 1993년도 북한의 총인구는 약 2246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추정치와 약 19만명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 수치이다.

### 3. 지역별 인구분포

북한은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대도시 인구편중 현상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3년말 현재 북한수도 평양의 인구는

1993년말 현재 북한수도 평양의 인구는 전체인구 중 13.4%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 인구와 비교할 때 대도시 인구편중 현상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인구 중 13.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도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8%에 불과하여 서울 인구(1990년 기준 남한 전체인구의 24.4%)와 비교할 때 약 반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이 국내외 이민은 물론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등 거주이전 사례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북한의 군인수 추정(1993년 연령별 인구기준)

(단위: 명, %)

추정 방법	군인수	총인구	통일원추정치대비 <sup>4)</sup>
북한총인구의 6.1% <sup>1)</sup>	1,251,863	21,774,214	96.1
16~24세 남자 중 46% <sup>2)</sup>	1,114,588	21,636,939	95.5
성비 96.2 적용 <sup>3)</sup>	754,927	21,272,278	93.9
성비 100.1 적용 <sup>4)</sup>	1,177,870	21,700,221	95.8
남자인구의 지역별합계와 연령별 합계의 차이 <sup>5)</sup>	652,036	21,213,378	93.7

- 주: 1) 에버쉬타트의 1987년 북한군인수 추정치 125만명(당시 북한총인구의 6.1%) 적용  
 2) 에버쉬타트의 17~26세 연령층 남자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치 46%를 본 센서스 자료의 남녀성비 차가 두드러지는 연령인 16~24세 남자인구에 역산하여 적용  
 3)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994 Revision*, 1994.  
 4) 통계청,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1996. 11.  
 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표 3. 북한의 지역별 인구구조(1993년말 현재)

(단위: 명, %)

구분	합 계	도 시	농 촌	도시화율 <sup>1)</sup>	인구비중 <sup>2)</sup>
총인구	20,522,351	12,501,217	8,021,134	60.92	-
성 비 <sup>3)</sup>	(89.24)	(90.85)	(86.77)	-	-
평양특별시	2,741,260	2,354,898	386,362	85.91	18.84
남포직할시	731,448	566,215	165,233	77.41	4.53
양강도	638,475	459,982	178,493	72.04	3.68
함경북도	2,060,725	1,482,753	577,972	71.95	11.86
자강도	1,152,733	753,282	399,451	65.35	6.03
평안남도	2,866,109	1,775,086	1,091,023	61.93	14.20
함경남도	2,732,232	1,658,676	1,073,556	60.71	13.27
평안북도	2,404,490	1,306,801	1,097,689	54.35	10.45
개성직할시	334,433	171,451	162,982	48.73	1.37
강원도	1,304,481	610,752	693,729	46.82	4.89
향산군 <sup>4)</sup>	32,952	15,423	17,529	46.80	0.12
황해북도	1,512,060	659,365	852,695	43.61	5.27
황해남도	2,010,953	686,533	1,324,420	34.14	5.49

주: 1) 전체인구 중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 전체인구 중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

3) 여자 100명당 남자 수

4) 북한은 행정구역을 크게 9도, 1특별시, 2직할시, 그리고 관광지역인 향산군(香山郡)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향산'은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분류에 속하고 있는 것임.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이에 대해 에버쉬타트는 북한이 1970년 대 이래 도시인구의 억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주민등록제도와 사회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이주증명을 사용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많지는 않다고 한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1987년 현재 북한의 인구이동 비율은 전체인구의 5.9%로 같은 시기 남한의 22.6%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나마의 인구이동도 도시에서 도시,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의 총인구 중 약 6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비율(도시화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30.7%가 농업인구로 나타나 간접적이거나 북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한 도시화율 통계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인구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지 않아 북한의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통계지표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도시화의 기준지표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북한이 말하는 도시인구가 단순히 비농업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구를 도시인구로 간주했거나, 도시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인구동태

북한은 경제발전수준이 낮고,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대수명은 높고, 출생률 및 사망률은 낮게 제시하고 있어 인구동태 측면에서는 이미 개도국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약 5.6%(전체인구에서 군인수 제외)로 남한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인구센서스 자료에는 기대수명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에버

북한은 경제발전수준이 낮고,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대수명은 높고, 출생률 및 사망률은 낮게 제시하고 있어 인구동태 측면에서는 이미 개도국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쉬타트는 1993년 현재 북한의 기대수명을 69.8세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주민의 기대수명은 UN이 전망한 선진국가들의 평균(1990~95년, 74세)보다는 낮지만, 아시아국가들의 평균(1990~95년, 65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수명이 사망자수와 다른 체계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 북한의 기대수명은 여기서 제시한 69.8세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일정 가구수를 책임지는 담당구역의 의사가 자기 구역의 건강상태와 사망 등을 중앙통계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도적·우연적인 오차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연간인구 천명당 신생아 출생비율과 사망률은 각각 19.8명과 5.5명으로 아시아국가들의 평균(1990~95년 출생률 24명, 사망률 8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영아사망률도 1993년말 현재 14.1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선진국 평균(1990~95년 11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미 아시아 평균 62명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북한인구센서스 자료에는 영아사망률이 제시되

표 4. 북한의 인구동태(1993년말 현재)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성 비(%)
조출생률 <sup>1)</sup>	19.83	20.86	18.85	-
출생자수	420,576	215,444	205,132	105.03
조사망률 <sup>1)</sup>	5.45	6.01	4.92	-
사망자수 <sup>2)</sup>	115,609	62,046	53,563	115.84
자연증가율 <sup>1)</sup>	14.38	14.85	13.93	-
자연증가수	304,967	153,398	151,569	101.21
영아사망률 <sup>3)</sup>	14.08	15.14	12.97	-
0세 사망자수	5,922	3,261	2,661	122.55
기대수명(세) <sup>4)</sup>	69.8	66.4	72.8	-
65세 이상 인구(%)	(5.56)	(4.83)	(6.68)	-

- 주: 1) 인구천명당 출생자·사망자수로 인구는 지역별 인구합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만약에 여기에 누락된 군인수를 포함시킬 경우 이 수치는 낮아질 것임.  
 2) 사망자수에 군인이 포함되었다면, 총인구에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3) 영아사망률은 살아서 태어난 천명의 아이 중 1년 이내에 죽은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1세 미만(0세 표기)의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4) 에버쉬타트(1991) 예측치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어 있지 않아 <표 4>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여 실제보다 과소 평가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에버쉬타트의 예측치(1993년 28.6명)를 적용해도 여전히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낮은 영아사망률은 북한 『인민보건법』(1980. 4. 3.)에 나타나 있는 예방의학적 방침과,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1978. 4. 18.)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정책 등 일반적인 기

초보건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 5. 북한의 노동력구조

1993년 현재 16세 이상 전연령층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노동가능인구(군인 제외)는 1447만 6천여 명으로 총인구의 약 7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실제 경제활동인구는 약 1100만여 명으로 76%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8.9%)

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한의 경제활동참가율 60%(1990년 현재)는 물론 체제전환 이전인 1985년 현재 구소련(70.8%), 폴란드(70.4%), 구동독(71.8%)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이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계산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을 측정하면 이 수치는 다소 낮아질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인구통계 결과는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북한 사회주의노동법 제5조, 1978. 5. 1. 시행)고 주장하는 북한의 노동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장자동률이 30%도 안되는

1993년 현재 16세 이상 전연령층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노동가능인구(군인 제외)는 총인구의 약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100만여 명으로 76%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실에서 이같은 사실상의 완전고용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노동인구중 상당수가 과잉 배치되었거나 불필요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중 노인인구(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와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비노동인구의 대부분은 학생(54.5%)과 가정주부(36.9%)이며, 그밖에 직업학교 학생(3.9%) 및 불구자(4.6%)로 나타났다.

표 5. 북한의 노동인구(1993년말 현재)

(단위: 명, %)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총인구대비 <sup>1)</sup>	여성인력비중
노동가능인구(A) <sup>2)</sup>	12,011,365	5,925,436	6,085,929	58.5	50.67
노동가능인구(B) <sup>3)</sup>	14,476,376	6,577,522	7,898,854	70.5	54.56
경제활동인구 <sup>4)</sup>	11,004,842	5,561,851	5,442,991	53.6	49.46
경제활동참가율 <sup>5)</sup>	76.0	84.6	68.9	-	-

주: 1) 북한발표 연령별 및 도·농 인구합계 기준(군인 제외)

2) 북한의 연로연금 지급기준(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적용한 남자 16~59세, 여자 16~54세인 모든 노동가능연령 인구

3) 경제활동인구와의 비교를 위해 남녀 모두 16세 이상 인구수를 계산

4) 남녀 모두 16세 이상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함.

5) 노동가능인구(B) 대비 경제활동인구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표 6. 북한의 비노동인구 분포(1993년말 현재)<sup>1)</sup>

(단위: 명, %)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비노동인구대비	여성인력비중
학 생	686,809	418,194	268,615	54.5	39.11
직업학교 학생	49,308	24,743	24,565	3.9	49.82
불구자	57,833	28,447	29,386	4.6	50.81
가정주부	465,262	0	465,262	36.9	100.00
합 계	1,259,212	471,384	787,828	100.0	62.57

주: 1) 여기서 노동가능인구는 남녀 모두 16세 이상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노동가능인구는 비노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노인인구(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를 합한 값이 됨. 그러나 노인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52,689명의 차이가 발생함.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북한의 직업별 인구분포를 보면 노동자(63.1%), 농민(23.5%), 사무원(13.4%)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교육이나 보건 등 비생산부문의 종사자들을 별도의 범주로 구성하고 있지 않아 상세한 직업구성은 알 수 없지만, 이 구성비율은 군인은 물론

론 학생, 가정주부, 노동불능자 등 비노동인구를 제외한 실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성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직업별 인구분포의 특징을

표 7. 북한의 직업별 인구(1993년말 현재)

(단위: 명, %)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인력비중
노동자 <sup>1)</sup>	6,944,058	3,332,530	3,611,528	63.1	52.01
사무원 <sup>2)</sup>	1,471,859	978,093	493,766	13.4	33.55
농 민 <sup>3)</sup>	2,588,925	1,251,228	1,337,697	23.5	51.67
합 계	11,004,842	5,561,851	5,442,991	100.0	49.46

주: 1) 국영기업소나 협동기업소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

2)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무원

3) 협동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살펴보면 첫째, 농민보다 기업소의 노동자 수가 약 2.7배 많게 나타나 북한이 농업사회가 아닌 공업사회구조 사회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취업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49.5%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남성인 군인수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셋째, 특히 사무원보다는 농민·노동자 직업의 여성인력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별을 무시하는 북한 사회주의의 직업관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구조를 살펴보면 공업부문의 노동력규모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농업(30.7%), 교육·문화·보건부문(7.7%) 등의 순서를 기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구조를 살펴보면  
공업부문의 노동력규모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 30.7%, 교육·문화·보건부문이  
7.7% 등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

록하고 있다. 특히 공업부문의 경우는 1993년도 남한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제조업 인구비율 23.5%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산업별 고용구조가 서독지역의 고용구조와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러한 북한 공업부문의 높은 인구비중은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양지역의

표 8. 북한의 산업별 인구(1993년말 현재)

(단위: 명, %)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경제활동인구대비	여성인력비중
경제활동인구	11,004,842	5,561,851	5,442,991	100.0	49.46
공 업	4,118,332	1,921,658	2,196,674	37.4	53.34
농 업	3,381,930	1,718,021	1,663,909	30.7	49.20
건설·지질	464,366	352,124	112,242	4.2	24.17
운수·통신	402,477	285,321	117,156	3.7	29.11
국영농장·시	250,787	152,716	98,071	2.3	39.11
상업·조달	508,630	161,097	347,533	4.6	68.33
교육·문화·보건	843,647	339,459	504,188	7.7	59.76
기 타	1,034,673	631,455	403,218	9.4	38.97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1995.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기술자 및 전문가의 수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3%(약 179만명)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아 이들 인력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이 수치는 에버쉬타트가 제시하고 있는 1988년 현재 북한의 고등교육(전문학교와 대학교) 이수자수(135만 3천명)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만약 북한이 제시한 기술자 및 전문가 수가 단순히 고등교육 이수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들을 전부 산업전문기술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사상우선의 교육에 치우쳐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창의력이라든가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데는 커다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경제용어에 의한 기술자란 “생산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하거나 또는 직무에 관계없이 실지 기술자격증을 수여받은 일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기술인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1993년도 북한의 인구센서스결과 분석은 북한이 UNFPA의 지

원을 받아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을 동원하여 개별가구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최초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령별· 시도지역별· 성별 총인구, 출생자 및 사망자수, 경제활동인구(직업별·산업별 포함), 기술자 및 전문가수, 비경제활동인구 구성, 그리고 도시화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자료내 전반적인 항목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실상에 근접하는 인구통계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항목별 인구추계 방식이라든가 항목의 정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북한인구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인구센서스 자료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군인수에 대한 통계수치를 여전히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결과는 최근 북한의 횡적 인구분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어떠한 북한인구통계 보다는 비교적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지만, 이와 함께 기존의 다른 북한인구관련 통계정보와 비교하여 본고의 결과가 갖는 함의나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